



[산업]
조현민
한진칼 전무로
전격 복귀
06



Life

[라이프]
콘부터 라면까지
식품업계
손세이셔널 붐
니



벽지 학교 금융교육... 장애인 자립 지원... 소외이웃 향한 나눔으로 피어나는 '희망 열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하나금융그룹

청소년 금융 체험 기회 제공
벽지 학교 찾아가 금융교육
베트남 학교 도서관 건립도

발달장애인 자립·일자리 지원
장애인 예술가 육성 프로젝트

씨앗은 거름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이 씨앗을 길러 내는 거름이 된 이유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청소년과 발달장애인을 돕는 하나금융의 다양한 사회공헌은 '희망'이란 열매를 키워내고 있다.

◆청소년들의 '꿈' 키우는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청소년에게 진로탐색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금융업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에게 향후 진로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 더불어 KEB하나은행은 기존의 일선 영업점에서 운영하던 은행원 직업 소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외환 딜러, 위조지폐 감정전문가 체험 및 외국 화폐의 숨은 이야기 탐구 등 다채로운 과정을 직접 은행원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직업인과의 만남'과 직접 교육용 통장 발행 및 금융 보드 게임을 진행하는 등 '체험형 학습' 등을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은 또한 벽지에 위치한 금융 지식을 접하기 힘든 학교의 학생을 직접 찾아가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017년 진행된 '찾아가는 하나 해피 클래스(Hana Happy Class)'는 김해, 의령, 태안 등 지역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에게 은행원 직업 소개, 통장만들기 실습, 금융게임 등을 진행했다.

KEB하나은행의 '하나 해피 클래스'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진행된다.

지난 4월 베트남 동나이 지역에서 진행된 '하나 해피 클래스 베트남'에서 KEB하나은행의 임직원은 현지 초등학교를 방문해 직접 도서관을 건립하고, 1000여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또한 현지 학생과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체험 시간과 명랑 운동회를 진행해 마음을 나누는 '휴머니티'의 확산을 실천했다.

임직원들은 또한 KEB하나은행 호치민 지점 직원과 함께 학용품이 들어 있는 100개의 행복 상자를 직접 제작해 베트남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국내외 직원의 협업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했다.

이어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6월과 7월, 찾아가는 체험형 금융교육인 '하나드림캠프'를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실시했다.

KEB하나은행의 하나드림캠프는 금융



- ① KEB하나은행은 지난 4월 '하나 장애인 디자인스쿨 2019 : Just Artist'를 후원하고 개원식을 가졌다.
- ② KEB하나은행의 '글로벌 금융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위조지폐 감정전문가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 ③ 지난 2017년 '찾아가는 하나 해피 클래스(Hana Happy Class)'를 통해 벽지 학교 학생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 ④ KEB하나은행은 지난 4월 베트남 동나이 지역에서 '하나 해피 클래스 베트남'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KEB하나은행



감독원이 추진하는 '1사 1교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금융회사본점과 영업점이 인근의 희망 학교와 결연해 체험활동을 진행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기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나드림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통장발급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통장 발급 업무 ▲세계 화폐 및 위변조 장치에 대해 공부해보는 위폐감별 업무 ▲직접 금융상품을 만들어보는 금융상품 개발 업무 등 다양한 은행 업무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KEB하나은행은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제12회 금융공모전에서 금융감독원장상인 '금융교육 우수 프로그램 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금융감독원은 "KEB하나은행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벽지 학교 학생들에게 체험형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미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시행한 점을 높이 평가해 이번 수상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KEB하나은행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금융을 쉽게 이해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은행의 역할 및 은행원의 업무에 대해서도 체험해 보면서 진로탐색과 직업체험의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희망' 키우는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은 발달장애인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돕는다.

하나금융그룹이 3번째 진행중인 '하나 파워 온 임팩트(Hana Power on Impact)'는 하나금융그룹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남다른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한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번에 진행된 '하나 파워 온 임팩트' 3기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혁신 프로젝트로, 사회혁신기업과 연계해 발달장애인의 강점에 기반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고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올하는 프로젝트 진행 3년차를 맞아 그동안 발굴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사례를 모아 '발달장애인 일자리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혁신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산 및 경제적 자립을 돕는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한다.

KEB하나은행은 이어 장애인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육성하고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예술가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KEB하나은행은 지난 4월 '하나 장애인 디자인스쿨 2019 : 저스트 아티스트(Just Artist)'를 후원하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고, 미술에 재능이 있는 장애인을 발굴해 예술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하나금융그룹 또한 지난해부터 '아름다운 그림여행'이란 테마로 서양화가 안윤모 작가와 함께 자폐성 장애 작가들의 전시회 개최를 후원하고 있다. 그룹은 이를 통해 장애인이 잠재적인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